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AGAIN, BUT BETTER

가제 : 다시, 더 행복하게

저자 : Christine Ricco

출판사: Wednesday Books

발행일: 2019년 5월 21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첫 공개 직후 아마존 사전주문 신작 베스트셀러 1위 등극

\* “구독자를 독자로 바꿔놓을 유튜브 스타와 만나보자” - 「뉴욕타임스」 북 뉴스

\* “재미 있고 영리한 환상적인 데뷔작.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 베스트셀러 작가 콜린 후버

의대에 당당히 입학해서 2년 반 동안 학점도 최상위권을 유지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다.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사이 좋은 부모님까지 있다면 정말 행복하고 이상적인 사람이구나, 싶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법. 이 꿈 같은 삶의 주인공인 세인의 속사정은 실제와 다른 수준을 떠나서 행복과는 정반대에 가깝다. 성적과 성과 면에서는 완벽할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대학생들의 기준에서 세인의 지난 시간은 엉망진창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구를 단 한 명도 못 사귀고, 연애는커녕 남자친구 하나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주말마다 꼬박꼬박 한 주도 빠짐없이 집에 가서 부모님과 주말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뉴욕 한복판에 살면서도 제대로 구경을 하거나 유명한 곳을 찾아가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세인이 가본 곳은 기숙사, 학교식당, 강의실 이 세 곳이 전부였다. 용케도 꼭 참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이런 삶을 2년 반이나 유지한 세인에게 슬그머니 한계가 찾아온다. 이려고 사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고,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말 따위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 억눌린 생활에 진절머리가 난 세인은 더 늦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마침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 영국 대학에서 한 학기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다! 심지어 의학이 아닌, 남몰래 열정을 품어 왔던 글쓰기와 문학 강의를 배울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순간 이미 세인은 비행기에 올라 런던으로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단, 이 꿈 같은 기회를 현실로 만들려면 거짓말을 해야 한다. 부모님이 교환학생까지는 허락해줄 지 몰라도 의대 공부와 무관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다는 사실을 알면 절대 허락해줄 리 없다. 특히 아버지는 세인이 노트에 뭔가 꼬적거리는 모습만 봐도 부리나케 달려와 노트를 책 낚아채고 뭘 그렇게 열심히 쓰냐며 일일이

확인하는 타입이었다. 글을 쓰는 것, 심지어 소설을 쓰고 싶다는 사실을 알면 아마 뒷목잡고 쓰러질 것이 뻔했다. 들키면 빼도 못 추릴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생각만 해도 손이 덜덜 떨릴 만큼 겁이 났지만 세인은 이번만큼은 무조건 추진해보기로 마음 먹는다.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다는 확고한 생각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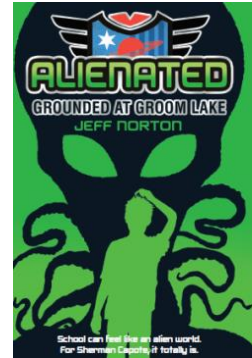
2011년, 마침내 런던에 도착한 세인은 빼곡히 정리해온 목표를 전부 해치우리라는 마음으로 기숙사에 들어선다. 친구 만들기, 남자와 키스하기, 런던 주변을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기, 술에 취해보기, 소설 시작하기, 이 모든 목표를 이루려면 3개월은 너무 짧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같은 기숙사를 쓰게 된 명랑한 친구 베이브와 사라, 아티쿠스, 파일럿과 만나면서 친구 만들기는 어렵지 않게 해결됐다. 무엇보다 의대에 다니면서 강의실에서 다른 사람과 말 섞지 않기 같은, 지금 생각하면 아주 비정상적인 계획을 실천하며 마음을 닫고 살았던 시간이 후회되는 만큼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을 걸고 좀 민망한 반응이 돌아와도 농담도 건네는 것만으로 좋은 사람들과 사귄 수 있었다. 게다가 세인은 환칠하고 다정한 파일럿과 대화를 나눌수록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는 것을 느낀다. 똑같이 비틀즈를 좋아하고, 유머코드도 너무 잘 맞았다. 하지만 그를 향한 마음이 나날이 부풀어 오르던 어느 날, 세인은 파일럿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수업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흥미롭고 세인이 제출한 글들도 뜻밖에 좋은 평가를 받아 힘이 나긴 했지만, 파일럿과의 관계는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래도 예전 같았으면 우울하게 움츠리고 있었을 세인은 친구들과 어울려 열심히 파티에도 나가고 여행도 다니면서 복잡한 머릿속을 털어낸다. 처음 해보는 모든 경험이 주는 짜릿한 즐거움에 취해 있던 시간도 잠시, 세인은 기숙사로 불쑥 찾아온 부모님과 마주친다. 런던에 온 진짜 이유가 모두 들통난 순간이었다.

소설은 평생 부모님이 고이고이 만들어준 안전한 틀 속에서 군소리 없이 살아오던 세인이 제발로 그 틀 밖으로 걸어나가 당당히 독립하는 과정을 흥미롭게 그린다. 세인이 노트에 쓰는 기록과 런던에서 부모님에게 보낸 메시지, 이메일에 점점 성장하고 무엇이 스스로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일인지 깨우쳐가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고 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님의 심정도 현실적으로 그려진다. 모든 지원을 끊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말고 지내자는 부모님의 청천벽력 같은 통보에 크게 흔들리지만, 세인은 곳곳하게 해야 할 일들을 해내고 그 결과 작은 잡지사에도 작가로 일할 기회를 얻는다. 친구들과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쓴 글들을 블로그에 게시한 것도 출판사의 눈에 띄어 여행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도 찾아온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희망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꿈처럼 느껴지던 행복이 바로 가까이에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쾌한 소설이다.

#### <저자 소개>

크리스틴 리코(Christine Ricco)는 유튜브 채널 'PolandbananasBOOKS'에서 도서 리뷰와 창작 과정을 담은 스케치, 비디오 자료를 제공해 왔다. 유튜브에서 가장 장기간 운영된 북클럽 채널 'BOOKSPLOSION'의 운영진이기도 하다.

제목 : ALIENATED  
가제 : 외계인 고등학교  
저자 : Jeff Norton  
출판사: Awesome Reads  
발행일: 2018년 11월 1일  
분량 : 320 페이지  
연령 : 9-13살 / 2권 시리즈 예정



\* “로봇과 촉수 20개 달린 생명체, 전지전능한 신이 다 함께 다니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니,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작가는 어린 독자들을 잘 아는 사람이자 재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법 하지 않은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존 세스카(Jon Scieszka)

미국 공군인 아버지를 따라 14년의 짧은 일생을 대부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았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후에는 일곱 번이나 전학을 해야 했던 셔먼은 처음으로 미국 학교에 첫 발을 디딘다. 아버지의 일 때문이 아니라 셔먼이 저지른 아주 엄청난 사고 때문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하게 됐으니 학교생활이 어떨든 셔먼은 불평을 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하지만 그름레이크 고등학교는 도저히 군소리 없이 다닐 수가 없는 곳이었다. 인간이 아닌, 외계생명체들이 득시글대는 곳이었으니까! 영화나 드라마로 슬하게 접했지만 정말로 이런 괴상하고 신기한 외계 생명체가 인간과 함께 지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셔먼은 자신도 모르게 이들과 친구가 되고, 지난 14년간의 인생 중 가장 흥미진진하고 짜릿한 모험이 시작된다.

한국, 프랑스, 영국을 거쳐 독일의 미군 기지에서 살던 셔먼은 3월 4일 밤에 지난 8개월간 열심히 준비한 일을 마침내 실행에 옮긴 것이 그토록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다. 어딜 가나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래야 직성에 풀리는 쌍둥이 여동생, 제시카가 학교 연극반 대표로 참여한 공연에 아버지와 기지에 사는 동료들 대부분이 무대에 집중한 사이, 공연장에서 몰래 빠져 나온 셔먼은 로켓 발사대로 향했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엄마의 유골이 담긴 작은 항아리에 마지막으로 작별인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로켓에 고정시킨 셔먼은 곧바로 연료장치에 시동을 걸었다. 엄마를 실은 작은 로켓은 약 3분 50초 만에 지구 대기과 그 바깥의 세계를 구분하는 경계선 너머에 도달했다.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인류 최초로 발을 디딘 역사적인 날, 고작 세 살이었던 엄마는 늘 우주비행사를 꿈꿨다. 하지만 그 시대에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한정되어 있었고, 하늘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스튜어디스를 꿈꿨던 엄마는 결국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 간호사가 되었다. 늘 셔먼에게 이루지 못한 꿈을 들려주며 뭐든 하고 싶은 대고 다 하고 살라며 누구보다 큰 응원을 해주던 엄마가 곁을 떠난 후 셔먼은 제 손으로 반드시 엄마를 우주로 보내드리리라 마음 먹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해낸 것이다.

하지만 엄마의 꿈을 이뤄주려던 열네 살 소년의 행동은 제3차 대전을 촉발시킬 뻔한 위험천

만한 시도로 밝혀졌다. 셔먼은 미 국방부 고위층은 물론 러시아 국방부 사람과도 통화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과해야 했다. 그리고 이 일로 미국에 돌아오라는 호출을 받은 아빠와 함께 독일을 떠난 것이다. 오빠의 무모한 행동을 조금도 이해할 생각도 없고 억울하게 자신까지 피해를 봐야 했다는 사실에 계속 화를 내는 제시카와 함께 또 새로운 학교에 다녀야 한다니, 셔먼은 앞날이 막막했지만 투덜거릴 수도 없었다. 그러나 학교 현관에 들어선 첫 날, 머리카락은 물론 눈썹, 속눈썹도 전혀 없는 희한한 외모의 교장선생님이 나타날 때부터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학교생활이 될 것이라는 조짐이 느껴졌다. 게다가 전학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백신접종’이라고 하질 않나, 양호실까지 가는 동안 ‘먹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당부까지 하시니 셔먼과 제시카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의아하기만 했다. 대저택의 흠 만한 거대한 양호실의 규모에 어안이 병병해진 두 사람은 총 만한 주사기를 들고 다가온 양호선생님에게 붙들려 엄청난 양의 백신을 맞았다. 같은 반 친구들을 만난 후에야 셔먼은 왜 이런 당혹스러운 일들을 겪었는지 제대로 이해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 인간은 셔먼과 제시카 둘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외계생명체였다.

촉수가 문어 발처럼 스무 개나 달린 옥토, 예민하고 섬세해서 기분 맞추기가 어려운 로봇 휴스턴, 연약한 동생들을 돌보면서 학교에 다니는 파충류 소냐, 그리고 우주 전체를 돌보는 여신 줄리엣까지, 셔먼은 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친구가 됐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학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까?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 ‘51구역’이라 불리는 광활한 사막 한 가운데 세워진 이 학교는 처음부터 외계인들을 위해 세워진 특수한 시설이었다. 어느 학교를 가나 선망의 대상이던 제시카와 달리 딱히 운동을 잘하지도 않고 공부를 잘하지도 않아서 변변한 친구 하나 사귀지 못하고 걸돌기만 하던 셔먼은 이 특별한 학교에서 친구도 가장 많이 사귀고 끈끈한 우정을 쌓아 가며 평생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학교 생활을 이어간다. 인간과 달리 외모나 능력을 가지고 놀리고 차별하는 일이 절대 없는 외계생명체 친구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 모습에 셔먼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해주던 사람인 엄마의 큰 빈자리가 조금이나마 채워지는 것 같은 감동을 느낀다. 그리고 여신이라는 부담감만 덜어내면 그냥 예쁘고 똑똑한 여학생인 줄리엣에게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대는 감정을 느낀다. 문제는 줄리엣이 셔먼에게만 첫사랑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전교에서 가장 사악하고 말 안 듣는 골칫덩이로 유명한 네드도 줄리엣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게다가 원하는 건 뭐든 손에 넣어야 하는 탐욕스러운 네드가 지구를 파괴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셔먼은 특별한 친구들과 힘을 합쳐 이 괴물을 몰아내기로 한다. 온갖 종류의 외계인들과 셔먼이 지구와 우주의 평화를 위해 당당히 나서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모험과 성장기가 흥미롭게 펼쳐지는 판타지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제프 노튼(Jeff Norton)은 캐나다에서 태어나 LA에서 살다가 현재 런던에서 작가 겸 TV 방송 작가,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MetaWars』, 『Memoirs of a Neurotic Zombie』, 『Keeping, The Beat』, 『Stomp School』 등을 있다. 인터랙티브 영화 <Choose Your Own Adventure>의 프로듀싱을 맡았다.